

FTA 비준안 '협의' 6개 언론법 '합의' 키로

■ 여야 '쟁점법안' 타결

여야가 언론관계법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상), 금산분리 완화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과행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수순으로 들어갔다.

다만 핵심 쟁점법안들에 대해서 여야가 완전한 이견 해소를 이룬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임시국회에서의 재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등은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쟁점법안의 처리 시한 및 방식 등에 논의를 거듭한 끝에 쟁점법안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각 당이 원내대표 합의안을 최종 주인할 경우 여야는 지난달 18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이후 계속돼온 대치정국에서 벗어나고 국회는 20일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미디어관련 8개 법의 경우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협의 처리하고 방송법·정보통신망법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키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고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 후 합의 처리 키로 했다. 특히,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버락 오바마 당선자의 취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집시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 등 10개 사회개혁법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농특세 및 교육세 폐지법안은 2월 중 합의 처리 키로 했다.

하지만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등 관련 3개 법안 개정문제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논의 방식을 놓고 극명



6일 오후 국회에서 쟁점법안 일괄타결을 이룬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손을 맞잡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각당 주인 변수... 국회 20일만에 정상화

핵심안 이견 2월 국회 재격돌 가능성도

한 입장차를 보였으나 민주당 안인 국회 정개특위 구성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정개특위 활동은 이달 말까지로 하되 2월 1일 개원 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흥 원내대표로부터 잠정 합의안을 보고받은 뒤 수용키로 가닥을 잡았고, 이날 밤 의원총회에서 최종 주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당내 일부 강경파들이 잠정 합의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최종 타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도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주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주인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잠정 합의안에 명기된 '협의 처리'란 주어진 시간까지 '협의'하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다수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협의 처리'란 반드시 여야가 '합의'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여당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룸에 따라 과행 국회의 정상화가 사실상 이뤄졌다"며 "그러나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이견이 여전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상당한 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박근혜 '쓴소리' 속내는

친李계와 대립각... 본격 활동 나서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5일 "국민을 위한 한다면서 내놓은 법안은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친이'(親李·친 이명박)와 대립구도를 확실히 하며 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하는揣度이 6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전날(5일) 거의 반년 만에 참석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통합을 위해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 앞에 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이 강경파를 정면으로 겨

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들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기 시작을 앞두고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것들이다. 그래서 과장은 6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이 과장을 가져온 것은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하면서도 극도로 발언을 자제해온 그가 한나라당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나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친이의 핵심인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설이 나온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친이계 측에서는 당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

고 있다. 친이계 측에서는 그의 발언을 "인기 영향주의적 발언"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사실 박 전 대표가 친이계의 이 같은 반발을 예상 못했을 리는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여원 핵심들과 각각 세우면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예단은 아직 때 이르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를 1위의 박 전 대표가 당내 혼란을 부추기면서 제 목소리 내기를 계속하는 모험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론에 호응하는 발언으로 국민과 정치권에 존재감을 확실히 보이면서 소기의 성과(?)를 본 만큼 또 다시 침묵 모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실 박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조심'과 '자제'로 평가된다. 어떤 논란과 혼란의 와중에서도 설득률 행보·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신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대충 민심의 향배가 정리됐을 때쯤 '도덕 교과서' 같은 발언을 하고 또 조용히 사라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대통령, 경제대통령 솔씨 보여야"

DJ, 맹형규 靑 수석에

에 돈이 직접 전달되게 해야 하는데 나도 경험해 보니 그게 쉽지 않더라. 은행이 말을 잘 안 듣더라"면서 "아래층에 돈이 들게 해야 그들이 소비해서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맹 수석이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관련해 한·미, 한·중·일 통화스와프 체결 등의 성과를 설명하자 "국가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50분간 진행된 이날 김 전 대통령과 맹 수석의 환담에는 청와대에서 김해수 정무비서관이, 김 전 대통령측에서 최경환, 하태운 비서관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영진(광주 서구을) 의원은 6일 오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MB악법 저지 국회 농성 해제 긴급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MB악법 저지 농성 해제 의정보고회

민주당 김영진 의원 광주서

이어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고통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정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남대 이생명과학용 학습센터와 광주과학기술원 차세대에너지연구소 건립 예산 등 총 106억원의 광주 교육과학 예산 확보 현황과 지난해 추경예산 심사에서 학자금 지원, 노인정 난방비 지원 등 3천여원의 민생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국 지역위원회 처음으로 지난달 26일 'MB악법 규탄대회'를 열었던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겨울방학을 맞아 티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총출강!!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7·9 금 공무원 특강

30 주부특별반 행 교 세 관 감 법 검 마 철 출 교 보 보 복 전 소 기 단 10 기 능 직 카
• 주·아동 생활리 양호증·정 육 무 세 사 원 찰 약 공 관 정 전 호 지 산 방 술 과 · 일반상식·한국사·교과목·
'09년 시험안내

① 시험일자 : 9월 4일~5일, 9월 11일~12일, 9월 18일~19일, 9월 25일~26일
② 채용인원 : 국가 3,267명, 지방 4,242명, 도 903명, 경기 685명, 전남 309명, 광주 118명, 전북 206명

③ 출강일자 : 7월 1일~2일(주·아동반 모집)
(현재 예약수정)

④ 출강장소 : 광주 동부서 뒤
(광주초교 후군방)

⑤ 출강시간 : 222-4560

⑥ 출강내용 : 44년 전통! 광주 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 본원 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⑦ 출강장소 : 2009년 9월 시험 예상
첫진도 개강_1월 2일

⑧ 출강장소 : 광주 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한글과정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⑨ 출강장소 : 국비지원 개별설정 매김
현, 세무사 9년 세법 강의!!

※ 12월 무료청강 환영합니다

광주문화신협

15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
"무보증 신용대출
1,000만원까지 가능!"
-사업장 카드체크기 무상임대-

문화신협 카드체크기를 사용(변경)하시면...

- ① 전자금융수수료 무료
- ② 신협 직원 A/S 관리

담보대출 안내

부동산 담보대출

① 아파트, 기타부동산 시세의 최고 70%

(상가, 균린상가, 나대지, 전, 단, 임야 등)

임대 보증금의 최고 70%(부영임대아파트 우대)

(계약서, 인감 3통, 등·초본 1통, 전입세대열람표, 인감도장, 신분증)

대출한도: 선수금 5% 이상을 제외한 차량금액 및 부대비용

차량구입시 견적서 제출시 최고 우대혜택 가능

② 대출한도: 소기업, 소상공인(개인사업자)

1천만원 무보증 대출 가능

③ 대출대상: 사업자 등록일 3개월 경과 사업자

*사업자 대출 안내

창업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최고 7,000만원

①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가 있거나 예정인 사업주

② 상환방법: 100일부터 360일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

일일상환대출 조건표(예시)

구분	100일	200일	300일	360일
1,000만원	103,498	53,520	36,887	31,352
3,000만원	310,497	160,560	110,560	94,056
5,000만원	517,490	267,600	184,435	156,760



문흥본점: 266-4150 (문흥지구 첫 사거리)

운암지점: 528-4150 (운암동 블루밍@1단지 상가)

양산지점: 573-4150 (양산택지지구 사거리)

블루밍지점: 513-4150 (광주문화예술회관 건너편)

최강의 교수진!
저자작강!

• 신관식 교수
서울 강남, 노량진 출강!!

• 이건호 교수
서울 종로, 분당 출강!!

• 이유종 교수
서울 노량진, 분당 출강!!

• 장경중 교수
현, 세무사 9년 세법 강의!!

※ 12월 무료청강 환영합니다